

소공동체

제1장 반장(남성구역장)의 역할과 실무

(남성구역(반)장은 반장의 역할과 실무에 따라 활동한다.)

1. 반원들에 대한 배려

(1) 반의 인원 관리

반원들의 명단, 전화번호, 주소를 파악하여 소공동체 수첩에 기록한다.

(2) 반원 가정 관리

반원 가정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파악해 그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주며 격려한다. 각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미사에 참여하는지 파악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미사에 참석하도록 권한다. 또한 가정에서 복음나누기 7단계나 가족 기도모임(길잡이)을 하도록 권하여 성가정이 되도록 돕는다.

(3) 전입·전출 교우 관리

전입 교우를 방문하여 반소공동체 모임에 초대하고, 전출 교우는 이사 간 곳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그 본당의 반소공동체 모임이나 주일미사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4) 쉬는 교우 관리

반의 쉬는 교우들을 파악하여 반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냉담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며 돕는다. 쉬는 교우들에게 주보를 전달하는 등 본당 소식을 꾸준히 알려주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권하며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노인에 대한 배려

노인들을 모시는 가정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과 기쁨을 들어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6)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반원들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을 의논하여 실천한다. 본당에 빈첸시오회가 있으면 가난한 이들을 소개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실직자 가정에 대한 배려

실직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하며 반원들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환자 관리

환자를 대할 때는 먼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며 성경 말씀으로 격려한다. 기도할 때에는 손을 잡아 주고 주님께 그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간구한다. 환자 자신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만날 때마다 격려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안내하여 환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9) 상례

반원 중에 상을 당한 사람 있으면 위로해 주며 본당 사무실이나 연령회에 알린다. 가족들에게 장례 절차를 알려주고 다른 신자들을 초대하여 연도를 바친다. 연령회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한 수세를 할 수 있다.

(10) 대세(代洗)

필요한 때에 ‘대세(代洗)’를 주도록 한다. 대세를 주어야 할 경우는 수녀님이나 다른 반장에게 알려 함께 가도록 한다. 대세를 준 후에는 대세 문서를 작성하여 본당 사무실에 보고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위급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조건부 대세’를 준다.

(‘소공동체 수첩’ 참조)

2. 반소공동체 모임 운영

(1) 반소공동체 모임을 주선한다.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방문하여 모임을 촉진한다. 또 참여한 반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도록 배려한다.

(2) 복음나누기를 촉진시킨다.

처음에는 반장이 복음나누기를 진행하다가 다른 반원들도 복음나누기를 이끌도록 권하고 준비시킨다.

(3) 반소공동체 모임에 교육이 필요하면 구역장이나 복음화위원들을 초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복음나누기 7단계, 소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응답, 아모스 복음나누기 등).

(4) 반원들이 본당과 교구의 교육과 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5) 반소공동체 모임 일지(보고서)를 서기와 함께 작성하여 한 부는 반에 보관하고 한 부는 본당에 제출하여 반소공동체 모임의 상황을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보고한다.

(6) 반원들을 잘 관찰하여 반원들의 변화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면 반소공동체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 반원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7) 소공동체 수첩을 늘 지니고 다니면서 반원들의 문제나 기쁜 일, 관찰한 것을 적어두었다가 반소공동체 모임에서 나누거나 본인과 대화하여 칭찬하고 격려한다.

(8) 가난한 사람들이 모임에 나와서 편안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주의 깊게 배려하며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9) 후임 반장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부반장이나 서기가 차기 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반장은 다른 사람을 키워 주는 사람이다. 반원들이 돌아가면서 반소공동체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준다.

(10) 반소공동체 모임에서 나누었던 대화에서 지켜야 할 비밀이 있으면 반원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반장 스스로도 비밀을 지킨다. 만약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11) 반원들의 상담자가 되어준다.

반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문제로 대화하기를 원하면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며, 가능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봉헌한다. 내담자(來談者)의 말을 듣고 적절한 위로나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귀담아 듣고 간단하게라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위로와 힘을 주신다. 신부님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부님과 만나도록 안내해 준다.

(12) 반소공동체 모임 때 음식은 되도록 간단하게 차린다. 음식을 장만하기 힘든 사람은 반소공동체 모임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기 전에 반원의 잘못을 지적하면 역효과가 난다. 친분관계가 두터워지면 조심스럽게 충고하도록 한다.

(14) 본당 활동이나 반소공동체의 운영에 있어 본당 단체와 협력한다.

만일의 경우 마찰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알려 중재를 청한다.

(15) 교무금이나 헌금에 대해 공지한다.

본당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여지는 내역을 잘 소개하고, 한달 수입의 1/10(십일조)을 봉헌하도록 권하며 최소한 수입의 1/30 이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6) 반소공동체 모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반원들과 상의하고, 더 큰 일은 구역장과 상의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은 본당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총구역장에게 건의한다.

(17) 반원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반소공동체 모임에서 농촌을 살리고 먹거리를 건강하게 하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반원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한다. 반소공동체 모임에서 재활용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천한다.

(18)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반원들이 독서나 보편지향 기도 등의 방법으로 미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끈다.

(19) 연 2회 반원들과 반소공동체 모임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점과 단점을 서로 지적해 주며 좋은 점을 격려하여 반원들간의 일치와 신뢰를 쌓아 간다 (제7장 ‘반소공동체 모임 평가 방법’ 참조).

3. 반장 영성

(1) 반장의 가정에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 반장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

(2) 성경를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반장 소공동체 수첩에 기록해 둔다.

(3) 현실의 삶을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다. 말을 삼가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4) 본당이나 지구, 교구의 교육과 피정에 참여한다(구역(반)장 월례연수, 구역(반)장학교 1·2·3단계, 삼위일체 리더십, 구역반장을 위한 성경 특강, 구역반장을 위한 전례 특강 등).

(5) 반장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다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을성과 온유함을 가지고 죄인들의 회심에 대하여 큰 희망을 가져야 한다(2티모 2,24-26 참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자.

(6) 매순간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화한다.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늘 나라가 바로 여기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4. 선교

(1) 반장은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비신자를 입교시키는데 반의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입교 예정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기도하며 방문하는 날을 정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배려를 한다. 입교식 날에 예비신자를 본당으로 초대한다. 반소공동체 모임 성장의 열매는 선교로 나타난다. 선교를 잘하는 반소공동체 모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성당으로 초대하도록 노력한다. 늘 선교사의 자세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당에 나오도록 권한다.

(2) 반원들과 함께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반원들에게 ‘우리도 선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3) 우리 반에서 무엇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고 협력자들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

(4) 반원들이 둘씩 짝지어 선교 활동을 하도록 안내한다.

선교를 잘 하는 사람과 선교에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이 함께 동반하도록 한다. 어떻게 활동할지 서로 의논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선교에 자신이 없어하는 반원은 반장이 짝이 되어 이끌어준다.

(5) 반모임을 통해 선교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며 준비한다.

(6) 본당의 선교 경험자를 초대해 함께 활동해주기를 청한다.

(7) 사도행전을 읽고 선교의 영성, 방법, 자세를 배운다.

(8) 반원들이 예비신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배려하며 예비신자들에게 대부·대모를 선정해 주고 영세 후 견진성사를 받을 때까지 동반한다.

제2장 구역·반장의 부르심과 사명

1. 반장은 반의 목자이다.

반장은 목자(牧者)의 심정으로 반원들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도록 돌보는 사람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고 하신 주님을 본받아 반의 목자인 반장은 양들을 잘 보살피고 이리떼 가운데서 지켜 주어야 한다.

2. 반장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반원들 모두를 한 사람씩 기억하며 기도한다. 기도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3. 반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반장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루카 14,12-14 참조).

4. 반장은 섬기는 지도자이다.

반장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겸손한 지도자이다. 반장은 자신의 말을 줄이고 다른 반원들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어 그들이 반소공동체 모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질문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면서 반원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촉진해 준다.

5. 반장은 반원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반원들 안에 있는 장점, 은총, талан트를 발견하여 키우도록 도와준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7).

6. 반장은 평신도 사도직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1) 사제직 :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모든 일(기도, 사도직 활동,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 등)을 성령 안에서 행하며 생활의 번민을 잘 극복해 낸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에 드는 영적 제물이 되며, 미사 때나 반소공동체 모임을 할 때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어 성부께 봉헌된다(교회헌장 34항 참조). 그러므로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장으로서의 삶 자체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2) 예언직 : 생활과 말씀으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느님 나라를 전한다. 가정·직장·사회에서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킬 때 우리의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교회헌장 35항 참조). 그러므로 반소공동체 모임에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반장은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는 것이다.

(3) 왕직 (봉사직) :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다운 자유 의사로 성부께 순종함으로써 하늘 나라의 영광을 차지했듯이 제자인 우리도 왕다운 자유로 극기와 거룩한 생활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겸손과 인내로써 자기 형제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 각 사람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왕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반장은 반소공동체 모임 안에서나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각자가 받은 카리스마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섬긴다.

7. 온유한 마음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힘들고 짜증스럽더라도 늘 기도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자.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태 5, 5).

8.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장점이나 거룩한 모습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가르치는 자세보다는 배우는 자세를 갖고 배우는 중에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주님도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서 배우셨다(마태 15,26-28 참조).

9. 늘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성령께 간구하자.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루카 18,9-14 참조).

10.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다 할 결실이 없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성공이나 보이는 결실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꾸준히 일하자. 일의 결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미약한 우리를 당신의 협력자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늘에 반장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자.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루카 10,20).

11.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내려 주신 다양한 은총에 따라 반원들이 성장하도록 대화의 주제, 내용, 형식을 달리해야 한다. 상황에 유동적으로 응답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깨달을 수 있는 너그러움과 자연스러움을 간직하자. ‘죽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밥을 주면 배탈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12. 반장 자신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반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과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제나 수도자에게 상담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반원들을 깊이 만나고 이해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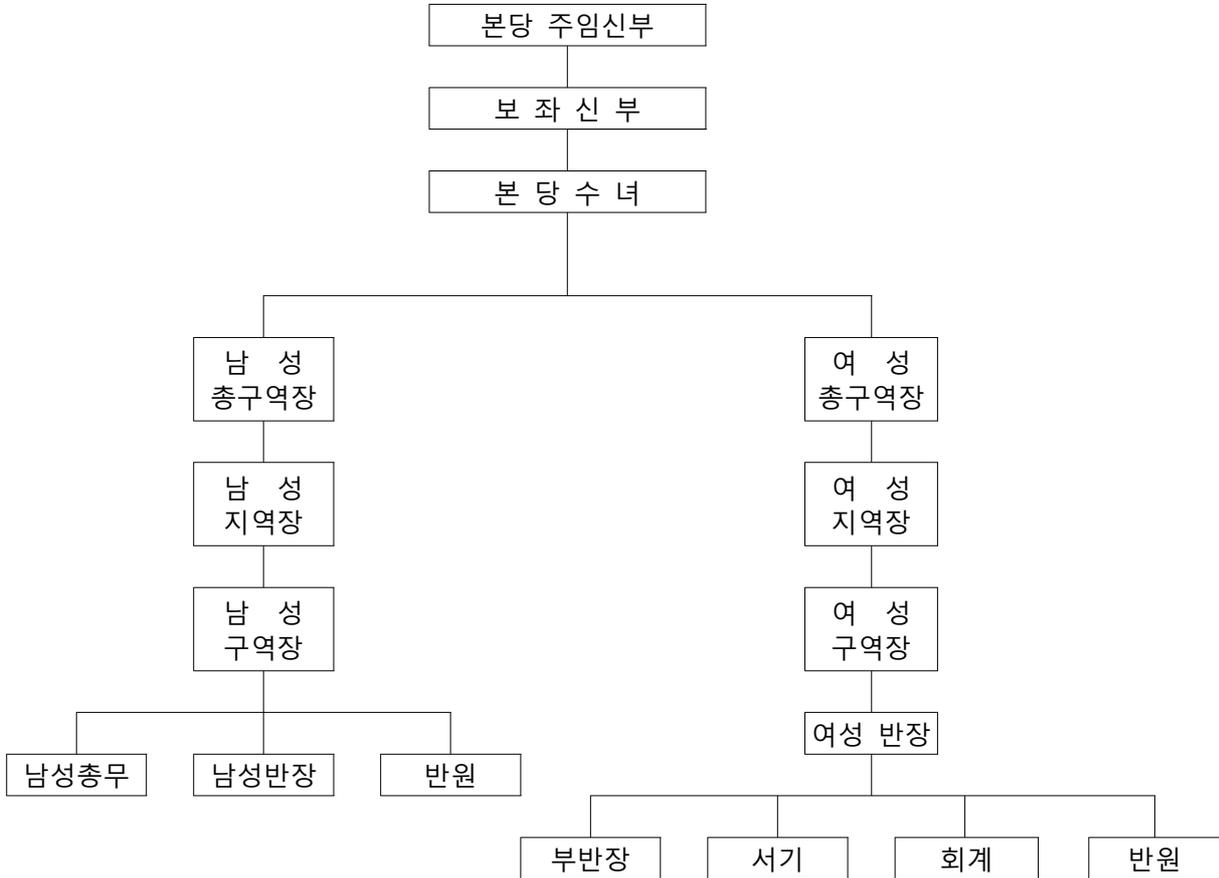
13. 속도가 느리더라도 반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장 혼자 잘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반원들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14.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공동체로 엮어진 본당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 반원들에게 전한다.

소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발견해 고쳐 나가고, 촉진해 주는 것은 발전시켜 나간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새로운 교회상이 평신도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반원들에게 전한다.

제3장 본당 소공동체의 구조



제4장 총구역장의 역할

1. 본당의 반장월례모임을 주관한다.
 - (1) 본당 신부님께 요청하여 반장을 위한 성경 강의나 영성 강의를 마련한다.
 - (2) 복음나누기(7단계, 공동응답, 아모스 복음나누기)를 교육하고 촉진한다.
 - (3) 구역(반) 월례연수의 그 달의 주제에 대하여 반소공동체에서 어떻게 심화할 것인지 안내한다.
 - (4) 소공동체에 관한 교육을 마련한다.
 - (5) 반소공동체에서 나온 문제나 건의 사항을 응답하고 함께 풀어 간다.
2. 구역장모임을 주관한다.

구역장을 통해 반소공동체의 상황을 점검하고, 모임이나 활동이 잘되는 반또는 구역소공동체를 격려하며 침체된 곳은 어떻게 도울지 의논한다.

3. 반장월례모임후에 간부(부총구역장, 총무, 서기, 회계)들과 반소공동체의 현황을 평가하고 다음 달에 할 일에 대하여 의논하고 준비한다.
4. 연 2회(전반기와 후반기) 반장들의 피정과 교육을 개최한다.
신부님과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고 강사를 선정하며 강의 내용은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정한다.
5. 선교를 촉진하여 구역·반소공동체 모임이 선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6. 반장과 구역장들을 교구나 본당의 교육과 피정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7. 구역·반원들이 본당 전례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8. 본당 행사 때에는 각 구역과 반의 상황을 잘 파악해 역할을 적절하게 배정한다.
9. 반장이나 구역장들을 위한 성지순례나 야유회를 마련한다.
10. 연말에는 구역·반장들에게 적당한 선물을 마련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을 위한 상품을 마련한다. 임기가 끝난 반장에게도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한다.
11. 사제, 수도자와 본당 사목위원들이 소공동체 활동에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안내한다.
12. 반소공동체에서 보고된 반소공동체 모임 일지를 토대로 '반소공동체 모임 회보'를 만들어 반소공동체 모임에서 나온 대화 내용, 활동, 건의 사항 등을 다른 반소공동체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3. '반장교육 참여 현황표'를 만들어 소지하고 반장들이 본당이나 지구, 교구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5장 여성 구역장의 역할

1. 구역장은 대략 5개 반을 맡아 반장들을 도우며 이끌어 준다.
2. 반장들과 월 1회 모임을 가진다.
복음나누기(7단계, 공동응답, 아모스 복음나누기 등)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으며 각 반소공동체의 상황이나 문제점을 서로 교환하고 구역 안의 여러 문제를 함께 조정하며 풀어간다.
3. 본당의 전체구역장모임(월 1회)에 참석하여 구역의 전체 상황과 문제를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보고하고 상의한다.
4. 일선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반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준다.
5. 직장문제나 시간문제로 반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역의 반원들을 모아 가능한 시간에 모임을 가지도록 배려한다.
6. 새로 생겼거나 침체된 반소공동체의 반장의 활동을 돕고, 부진한 반장은 격려한다.
7. 구역의 피정·교육·모임을 반장과 함께 계획하고 추진한다.
8. 구역 활동이나 행사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한다.
9. 차기 반장 후보를 생각해 두고 현 반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반장을 하도록 배려하여 여러 사람이 반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10.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 혹은 총구역장에게 임기를 마친 반장에 대해 적절한 시상을 하도

록 건의한다.

제6장 반장의 임기와 선출과정

본당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하여 4년 정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떤 반소공동체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같은 사람이 10년이나 반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반장을 천직으로 알고 기쁘게 반원들을 섬기고 꾸준히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보배들이다. 그러나 즐겁게 반장활동을 하던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사명감이 시들해지고 처음의 열정이 사라진다.

되도록 여러 사람에게 반장활동을 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책이 사람을 만들어 준다. 지식이나 능력 면에서 부족하게 보이던 사람도 책임을 맡으면 잘 해낸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길러 보았기 때문에 반소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잘 알고 있다.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임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반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신앙공동체의 일꾼을 임명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친목 모임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꾼을 뽑는 일이므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키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에 먼저 기도를 하고 선출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게 되었다. 우리도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을 감지하면서 새로운 반장을 선출하게 되면 선출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파견되었다는 사명감을 갖고 신명나게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장 선출 과정〉

1. 한 달 전부터 반장 선출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
(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회피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선출할 수도 있다.)
2. 선출하는 날 투표를 하기 전에 모두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
(예: 주님! 저희 반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갈 새로운 반장을 뽑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반장을 보내 주소서. 주님은 저희 반을 잘 아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십니다. 가장 합당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3. 각자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한다. 반장으로 선출될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나 바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4. 투표를 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는 사람을 새로운 반장으로 선택한다. 일단 선출이 되면 '주님이 보내 주신 반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5. 당선된 새 반장의 소감을 듣는다. 새로 선출될 반장이 부담이 되어서 안하려고 한다면 각자 돌아가면서 서로서로 반소공동체 운영에 협력하도록 하는 다짐을 할 수도 있고 새 반장을 격려할 수도 있다.
6. 새로 선출된 반장을 가운데 두고 모두가 둘러 앉아서 주님이 보내 주신 새 반장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자유기도를 한다.

(예 : 주님, 저희 새 반장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소서. 저희도 저희 반장을 아끼고 협력하겠습니다.)

7. 구역장과 본당에 새 반장의 선출을 알린다.
8. 주임 신부는 새 반장에게 반장 임명장을 수여한다. 주님이 뽑아 세웠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한다.
9. 새 반장은 반장으로서의 소양을 양성하기 위해 교구나 지구의 반장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는다.

제7장 반소공동체 모임 평가방법

우리가 반소공동체 모임을 평가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비복음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평가 작업은 어느 개인이나 우리 반소공동체를 판단하고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더욱 키워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 작업에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잘못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도와서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1. 소공동체로 엮어진 본당 공동체

- (1) ‘소공동체로 엮어진 본당 공동체’로 가야하는 교회의 방향을 알고 있는가?
- (2) 반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고 활성화를 촉진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새로운 교회상이 평신도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 (4) 신자들이 소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반소공동체 모임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

2. 복음나누기

- (1) 복음나누기 7단계를 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친교 등의 다른 요소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가?
- (2)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삶을 털어놓는가? 삶을 나누면서 힘을 얻는가?
- (3) 활동하는데 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가? 이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가?
- (4) 7단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 (5) 7단계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는가?
- (6) 다양한 복음 나누기 방법을 사용했는가?

- (7) 노인들이 반소공동체모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잡고 있는가? 노인들이 대화에 참여하는가?

3. 봉사자

- (1) 구역·반장은 선출되는가? 임명되는가? 후임자 선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 왜 반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 (2) 소공동체 봉사자(구역장·반장)가 자신들의 할 일을 잘 알고 그 책임을 다하는가?
- (3) 우리 반장은 어떤 면에서 탈렌트(은총)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 (4) 반원들은 반장을 잘 도와주고 있는가?
- (5) 구역·반장을 위한 피정과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있으며 누가 지도했는가? 그것이 구역·반장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6) 앞으로의 피정과 교육은 어떤 내용이 되기를 원하고 누가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가?
- (7) 반장에게 지속적으로 영적 양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 (8) 교구나 본당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가?
- (9) 새 반장들이 구역장·반장학교 1단계 교육을 받았는가?

4. 선교 활동

- (1) 반소공동체에서 예비신자 입교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의논하고 활동하여 입교자를 초대하고 있는가?
- (2) 반소공동체 모임이 친교의 공동체에서 선교의 공동체로 발전해 가야함을 깨닫고 있는가?
- (3) 선교의 장애 요소는 무엇이고 선교를 촉진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 (4) 쉬는 교우들을 방문해 반소공동체 모임에 초대하고 있는가?
- (5) 반소공동체 모임이 예비신자들을 동반하고 그들의 대부·대모가 되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5. 사회 활동

- (1)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반소공동체 모임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그들이 모임에 나와서 기쁨을 체험하는가?
- (2) 우리 반소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도움의 손길을 쏟고 있는가?
- (3) 우리 반소공동체나 구역에서 행한 활동 중에서 특히 보람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 (4)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 (5) 농촌을 살리고 먹거리를 건강하게 하려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 (6) 반원들이 재활용품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6. 구역·반장 월례연수

- (1) 구역·반장 월례연수 교육에 참여하는가? 교육이 도움이 되는가? 불참한다면 이유는 무

엇인가?

- (2) 구역·반장 월례연수에 바라는 강의 내용은 무엇이고 강사는 누구인가?
- (3) 지난 달 연수가 잘 이해되었는가?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은 무엇인가?

7. 구역장·반장학교 1단계(지구)·2단계(지역)·3단계(교구) 교육

- (1) 지구 및 교구 구역·반장학교 교육에 참여하는가? 교육이 도움이 되는가?
- (2) 강의 내용은 잘 이해되는가?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무엇인가?

8. 본당 전례

- (1) 미사에 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보편지향 기도’나 독서에 참여하고 있는가?
- (2) 강론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하여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가?
- (3) 강론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신자들의 이야기를 신부님께 알려 드리는가?

9. 가정

- (1) 반소공동체 모임은 가족의 일치와 신앙을 굳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 (2) 가정에서 복음나누기나 가정 대화가 있는가?
- (3) 우리 가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0. 총구역장 모임·연수

- (1)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11. 사목회·본당 단체

- (1) 소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하며 반소공동체 모임 활성화에 협조하고 있는가?
- (2) 그들이 반소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2. 주임신부님과 수녀님

- (1) 반소공동체 모임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시는가?
- (2) 그분들을 우리의 협력자로 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 (3) 자주 찾아뵙고 그분들의 일에 협력하며 반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 기도 하는가?

13.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 사항은?

제8장 구역·반장·반원 활동(평신도 사도직)사례보고 양식

(아래 설문을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십시오.)

1. 나의 신앙 역사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 (1) 영세일은 언제입니까?
- (2) 영세를 받도록 이끌어 준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 (3) 세례 때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 (4) 그 동안 하느님은 어떤 은총을 주셨습니까?
- (5) 가족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 (6)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7) 나의 신앙이 성장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 (8) 나의 신앙 생활을 도와주신 분이나 단체 활동은 무엇입니까?
- (9) 어떤 마음으로 봉사직을 수행합니까?
- (10) 구역·반소공동체에서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 (11) 매일 어떻게 성경을 묵상합니까?
- (12) 성경쓰기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2. 구역·반소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총은 무엇입니까?

- (1) 반장(사도직)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 (2) 사도직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한 점은 무엇입니까?
- (3) 구역·반 형제 자매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 (4) 본당의 어떤 활동이 나의 신앙과 사도직 활동에 힘이 되었습니까?
- (5)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3. 나는 구역·반소공동체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 (1) 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 (2) 반원들의 어려움과 기쁨에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 (3) 반모임을 이끌면서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4. 우리 반과 구역은 소공동체 활동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1) 신자들이 기도를 잘합니까?
- (2) 복음과 삶을 잘 나눕니까?
- (3) 반원들이 일치룰 이루고 있습니까?
- (4) 공동체가 여러 활동을 하는데 잘 참여하고 이런 활동이 점점 발전합니까?
- (5) 가난한 사람들이 반소공동체에 편안하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 (6) 반원(평신도)들의 자발성이 성장합니까?
- (7) 반원들을 만날 때에 어떤 눈으로 보고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줍니까?
- (8) 반원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 (9)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일으키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은 무엇입니까?

- (10) 보잘것없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이나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 (11)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 (12) 나나 반원들은 성경을 보면서 살아 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 (13)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어떤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까?
- (14) 동료들이나 신자들과 서로 연민을 갖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함께 돕습니까?
- (15) 성경에서 만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체험과 예화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 (16) 성경을 보면서 기도합니까? 성경을 볼수록 기도가 발전합니까?
- (17) 성경을 볼수록 가정과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18) 성경을 볼수록 미사나 고백성사 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19) 반소공동체에서 짧은 성경구절을 외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 (20) 반소공동체에서 말씀 나누기가 어떻게 삶에 힘을 주고 삶을 변화시킵니까?
- (21) 생활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5. 소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1)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고칠 점은 무엇입니까?
- (3) 건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 (4) 구역·반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5) 본당이나 사목자나 다른 신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6) 구역·반소공동체에 참여 인원은 작년에 비하여 증감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6. 기타 : 구역반 인원 현황 (아래 내용은 답하지 않아도 됨)

- (1) 교우 가구 _____ 가구
- (2) 외딴 교우 _____ 명
- (3) 쉬는 교우 _____ 명
- (4) 신영세자 _____ 명
- (5) 초등부 학생 _____ 명
- (6) 중고등부 학생 _____ 명
- (7) 청년 _____ 명
- (8) 장년 _____ 명
- (9) 교리 중인 사람 _____ 명
- (10) 반소공동체에 참여자 남자 _____ 명, 여자 _____ 명
- (11) 교우 총인원 _____ 명